국립세계문자박물관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보도자료

문자로 세계와 교류하고
문자의 가치를 확산합니다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6. 6. 30.(화) 07:00		
담당부서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홍보디자인부	책임자	부장	이시종	032-290-2045
		담당자	팀장	정경아	032-290-2013
			대리	허아영	032-290-2049

“3년의 기록 위에 세계문자의 미래를 쓰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 3주년 맞아 국제교류·스마트 박물관 사업 본격 추진

- 누적 관람객 300만 명 돌파... 상반기 성과 바탕으로 하반기 국제교류·스마트 박물관 추진
- 소장품 중심 전시와 기증문화 확산, 해외교류전·점자 특별전·AI 아카이브 구축 등
- 개관 3주년 기념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진행 (7월 5일까지)

국립세계문자박물관(관장 김명인)이 6월 29일 개관 3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023년 세계문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최초의 박물관으로 출발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올해 3월 누적 관람객 300만 명을 달성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해 왔다. 박물관은 개관 3주년을 계기로 소장품 중심 전시, 문자문화 연구, 국제교류,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본격화하며 세계문자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장품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전시 확대

올해 상반기에는 박물관이 축적해 온 소장품과 연구 성과를 활용한 전시들이 관람객을 맞이했다.

개관 3주년 기념 특별전 **《글씨상점: 당신의 글씨, 당신의 취향》**는 박물관이 엄선한 서화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자예술을 새롭게 조명했다. 문자를 ‘읽는 대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대상’으로 확장했으며, 인천 지역 학생들의 캘리그라피 작품을 함께 전시해 지역사회 참여형 전시를 선보였다.

상설테마전 **《수집가의 집》**은 기증 자료를 통해 문자가 종교, 문화, 기록을

이어온 과정을 소개하고, 자료에 담긴 기증 이야기를 함께 조명하며 기증문화의 의미를 전했다. 이와 함께 대만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와 협력·복원한 갑골문 복제품을 새롭게 공개하며 한자 전시 콘텐츠를 한층 보강했다.

연구와 자료 확충으로 전문성 강화

전시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학술 연구와 문자 자료 확충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제3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표음문자의 기원과 발전, 세계문자 연구의 방향성을 논의했으며, 연구총서 『문자와 문자문화』를 발간해 국내외 연구자들과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국내 공개구입과 해외 현지조사를 통해 다양한 문자문화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소장 기반을 넓혔다. 특히 '스미스 코로나 한글 타자기'를 비롯한 귀중한 자료들을 새롭게 기증받았으며, 기증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박물관 내에 '기증자 명예의 전당'을 조성했다.

국제교류와 스마트 서비스로 활동 영역 확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올해 하반기에도 전시, 연구, 국제교류를 통해 활동 영역을 전 세계로 넓혀갈 계획이다.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 기념 특별전 《소통하는 점: 훈맹정음》(가제)과 프랑스 샹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에서 열리는 첫 해외교류전 《한 왕의 꿈, 만백성의 말》을 통해 한국과 세계 문자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또한 제4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번역'을 주제로 문자와 언어를 매개하는 소통의 가치를 조명하고, 연구총서 발간을 지속한다. AI 기반 아카이브 챗봇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장자료와 박물관 정보를 관람객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 박물관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맞아 영유아부터 성인, 외국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자문화 교육 프로그램인 '모우 에듀위크(MoW Edu Week)'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박물관은 개관 3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7월 5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박물관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글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문자(단어, 글자, 기호 등) 3가지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모바일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증정한다.

김명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은 “지난 3년은 세계문자 전문박물관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가능성을 넓혀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문자가 담아온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 연구·전시·국제교류를 통해 세계 문자문화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하반기 주요 사업 일정(안) 1부.
2. 이미지 자료 1식. 끝.

붙임 1 **2026년 하반기 주요 사업 일정(안)**

구분	사업명	기간	장소	내용
기획 특별전	<글씨상점: 당신의 글씨, 당신의 취향> A House of Calligraphy	'26.5.1.~8.23.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전통 서예부터 현대 캘리그라피까지, 글씨를 쓰고 감상하는 것의 의미와 자기표현으로서의 예술적 가치를 탐구하는 전시
	<소통하는 점: 훈맹정음> (가제)	'26.10.~'27.2. (예정)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맞아 송암 박두성 선생의 점자 개발과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소통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는 전시
해외 교류전	<한 왕의 꿈, 만백성의 말> Hangeul, la volonté d'un roi	'26.7.3.~10.11.	프랑스 샹폴리옹 세계문자 박물관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문자'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바라보며, 한불 문자교류의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
교육	모우 에듀위크 MoW Edu Week	'26.7.28.~8.16.	박물관 일대	여름방학 동안 집중 운영되며, '문자야 놀자'를 주제로 영유아와 어린이부터 성인, 가족, 장애인, 외국인까지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10종 53회차)를 편성하여 운영

붙임 2 **이미지 자료**

[사진1] 기획특별전 <글씨상점> 관람 모습

[사진2] 상설테마전 <수집가의 집> 공간

[사진3] 상설전시 갑골문 전시 공간

[사진4]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증자 명예의 전당

[사진5] 제3회 국제학술대회 현장

[사진6] 개관 3주년 인스타그램 이벤트 이미지